

금호타이어, 유럽물량 주문 '급감'

중국 타이어 생산 기업 더블스타와 본계약 체결 완료로 경영정상화의 길로 들어선 금호타이어가 유럽 오퍼상의 영업오더(주문) 대량 축소로 불가피하게 국내 공장 3곳이 일시적인 휴무에 들어가게 됐다.

10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이달 19일 오전부터 22일 야간까지 나흘간 광주·곡성·평택 공장이 휴무에 들어간다.

이 기간 동안 곡성 공장은 승용차 타이어(PCR) 생산라인만 휴무에 들어가며 트럭·버스용 타이어(TBR) 생산라인은 정상 가동한다.

광주와 곡성PCR 공장은 오는 30일 오전부터 31일 야간까지, 내달 6일 오전부터 7일 야간까지 각각 나흘간 두 차례 더 휴무에 들어간다.

나흘간 가동을 멈춘 평택 공장은 오는 31일 오전부터 야간까지 하루 더 공장을 멈추며, 내달 6일 오전부터 9일 야간까지 3일 동안 추가 휴

광주·곡성 등 국내 일부공장 '최장 8일' 휴무

사측 "더블스타 투자금 납입...실적 개선 될 것"

노조 "물량확보 방안 미래위원회서 요구할 것"

무에 들어간다.

이달 19일부터 내달 9일까지 평택공장은 국내 공장 3곳 가운데 최장 기간인 총 8일간 공장을 멈추게 된다. 곡성TBR 생산라인도 내달 6일 오전부터 7일 야간까지 이틀간 추가 휴무에 들어간다.

물량 감소에 따른 공장 휴무는 이에 앞서 지난 5월~6월에도 일부 공장을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는 관계자는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 주문량이 줄면서 공

장운영에 필요한 물량부족으로 '경영정상화 노사특별합의서'를 적용해 불가피하게 공장휴무를 실시하게 됐다"며 "향후 영업오더 상황에 따라 휴무 일수는 축소 또는 취소될 수 있고, 더블스타의 투자금이 납입되고 매각이 완료된 만큼 앞으로 빠르게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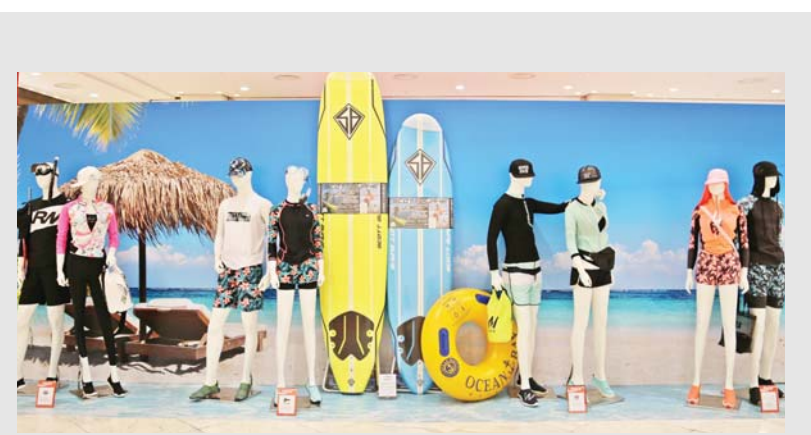
노사가 지난 4월2일 체결한 '경영정상화 노사특별합의서'에는 '공장별 물량 상황에 따라 휴무일을 공

업오더 상황에 따라 휴무일수를 축소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공장 휴무 조치가 이어지자 국내공장의 미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사측은 당분간 생산물량 감소가 불가피하고 공장휴무가 8월~9월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면서 "더블스타 해외매각이 완료된 현 시점에 영업오더 하락에 따른 생산 감소조치 일환으로 공장 휴무가 지속된다면 경영상황 악화, 고용문제, 구성원의 생존권, 국내공장의 장기적인 발전방안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조만간 '미래위원회'를 통해 경영진에 물량확보에 필요한 장·단기 대책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



"올해도 역시 래쉬가드가 필수템"

광주신세계, 오는 29일까지 수영복 특집 진행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최민도)는 1층 시즌 이벤트 홀과 각 브랜드 본 매장에서 래쉬가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수영복을 선보이고 있다.

여름이 무르익어지면서 수영복을 구매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 광주신세계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의 수영복 브랜드 매출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동기 기간에 비해 5.1%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래쉬가드는 올해도 여름 물놀이 필수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래쉬가드(Rash guard)는 '찰과상이나 화상으로 인한 발진(Rash)을 막는다(Guard)'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수상스포츠를 할 때 피부보호에 효과적이며, 바다에서 해양스포츠를 즐기는 경우 해파리나 부유물에 피부가 공격당하는 것도 막아준다.

특히 햇빛이 몸에 바로 닿는

것을 막아 피부를 타지 않게 해주며, 노출을 꺼리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매년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최근에는 티셔츠 형태의 상품 외에도 후드나 집업, 그리고 배꼽 부분이 드러나는 크롭탑 형태의 래쉬가드까지 종류가 다양해졌다. 또한 유명 개러터나 화려한 무늬가 수 놓여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상품도 등장했다.

높아지는 래쉬가드와 수영복의 인기 속에 광주신세계는 지난 7월 2일부터 1층 광장에 인기 상품 전시하는 한편, 1층 시즌 이벤트 홀에 수영복 전문 브랜드인 '아레나'와 '엘르, 레노마' 등 3개 브랜드를 모은 수영복 전문 코너를 마련하고 29일까지 약 1달간(16~19일만 제외) '수영복 특집'을 진행한다.

김연숙 기자

쫄면이 냉면 늘렸다

67% 신장...냉면·일반 라면 앞서



올해 들어 쫄면 라면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여름 면 음식인

냉면보다도 더 많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

10일 G마켓에 따르면 지난달 판매된 '쫄면' 라면의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67% 증가했다. 대표적 여름 면 음식인 '냉면'의 같은 기간 판매 신장률인 4% 보다 17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계절에 상관없이 판매량이 높은 편인 라면·칼라면은 쫄면 라면 판매 증가율의 절반 수준인 31%의 신장률을 보였다.

G마켓에 따르면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제품은 '오뚜기 진짜쫄면'이다. 이 제품은 150g의 많은 양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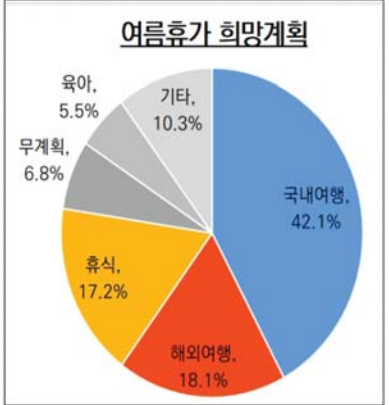
그외에도 ▲생면용 사용 '풀무원 생면식감 탕탕비빔쫄면' ▲저온 숙성으로 만든 면을 사용한 '동원 자연&자연 골뱅이캔+면발의신 쫄면 세트' ▲매운맛과 큰 아재 건더기가 특징인 '백제식품 핫쫄면' ▲'추억의 국민학교 떡볶이 쫄면' 등이 많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

직장인 여름휴가, 7월 말~8월 초 '절정'

직장인 여름휴가 7월 말 8월 초 몰렸다... '나 홀로 휴가'도 선호

직장인 34.2%, 7월 29일부터 8월 4일 사이에 휴가계획

일	월	화	수	목	금	토
7/29	7/30	7/31	8/1	8/2	8/3	8/4



- 누구와 함께 휴가 보내시나요?
- 가족(26.2%)
 - 자녀(25.5%)
 - 부모(15.8%)
 - 나 혼자(11.9%)
 - 친구(8.6%)
 - 연인(7.5%)
 - ...

Incruit X 알바콜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올해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었다. 또한 나 혼자 휴가를 준비하고 있는 비율도 상당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와 아르바이트 OX 플랫폼 알바콜이 공동으로 직장인 507명에게 "여름휴가 계획"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79.5%의 직장인이 여름휴가 계획을 확정했다.

여름휴가 기간은 7월 마지막 주와 8월 첫째 주가 겹치는 7월 29일부터 8월 4일 사이가 34.2%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8월 둘째 주(12.8%), 8월 셋째 주(12.6%), 7월 넷째 주(8.5%) 순이었다. 7월 마

"나 혼자 휴가 간다" 늘어
국내여행>해외여행>휴식

지막 주 앞뒤로 1~2주 사이에 대부분의 여름휴가가 몰려있을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다.

더불어 여름휴가 계획으로 국내 여행을 생각하는 직장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42.1%의 응답자가 국내여행을 갈 것이라 응답했다. 뒤따른 응답으로는 '해외여행(18.1%)', '휴식(17.2%)', '계획 없이 지내는 것(11.9%)' 등이 있었다. 국내여행과 해외여행을 포함하여 10명

중 6명의 직장인이 여름휴가 때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여름휴가를 누구와 함께 보낼 것인지를 물어본 결과 '혼자 휴가를 보내겠다'는 응답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다. 가장 비율이 높았던 응답은 '가족(26.2%)'였으며, '자녀(25.5%)', '부모(15.8%)' 다음으로 연인이나 친구

랑 보내겠다는 응답보다 나 혼자(11.9%) 보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연인과 친구보다 '나 혼자' 휴가를 보내겠다는 응답이 많은 것이 인상적"이라며 "혼반, 혼술에 이어 나 홀로 휴가가 여름휴가 트렌드로 확고히 자리 잡지는 않았지만 여름 휴가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국내서 종이빨대 쓴다

플라스틱 줄이기 나서

스타벅스가 국내에서도 종이빨대를 사용기로 하는 등 플라스틱 제품 사용 감축에 나섰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10일 일회용품 줄이기 대책을 포함한 전사적인 친환경 캠페인 실행 계획인 '그리너(Greener) 스타벅스 코리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더 푸른(Greener) 스타벅스'를 가꿔가겠다는 의미로 ▲제품(Greener Product) ▲사람(Greener People) ▲매장(Greener Place) 등 3가지 분야로 진행된다.

우선 제품과 관련해 플라스틱 빨대를 퇴출하기 위해 올해 안에 종이빨대를 도입해 시범 운영한 뒤 전국 1180개 매장에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스타벅스에서 1년간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빨대(21



cm)는 약 1억8000만개로 종이빨대 도입을 통해 연간 지구 한 바퀴(약 4만km)에 해당하는 총 3만7800km 길이, 무게로는 12t의 플라스틱 사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또 아이스 음료의 경우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리프캡(뚜껑)을 도입해 빨대 사용을 줄이기로 했다.

제품 포장재를 위해 일부 사용해 왔던 비닐 포장재도 친환경 소재 포장재로 변경해나간다.

뉴시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